중기부와 외교부의 '케미'

김 승 호의 시 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의 '케미'가 본격화됐다.

성질이 급해 결론부터 말하면 장관이 바뀌어도 두 부처간 케미는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부처간 칸막이도 빨리 제거해 중앙부처 상호간 시너지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중기부와 외교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외교부에서 베트남대사와 차관을 역임한 외교관 출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외교력'을 발휘하면서다.

골자는 해외 진출을 원하거나 이미 나가 있는 중소기업 등을 전 세계에 있는 재외공관이 주재국 정부와 맞닿은 외교채널을 활용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재외공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현지에 있는 협회 및 단체, 해외 진출 국내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등 민관이 합심해 현지 정보 제공, 애로접수 및 해소, G2G 협력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펼치게 된다.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도 외교부가 공관 소통채널을 활용해 현지 시장 및 주재국 정책 정보, 기업 애로 등을 중기부에 제공, 기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등 재외공관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67곳에 이른다. 유럽에 가장 많은 48곳이 있고, 아주(47곳), 미주(35곳), 중동(19곳), 아프리카(18곳) 순이다.

오 장관은 "재외공관은 가장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네트워크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다. 현지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등 장점이 많은 곳"이라며 "재외공관이 구심점이 돼 협의체를 꾸려 중소벤처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또 올해 튀니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노이, 호치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7개 공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따로 놀았던 중기부와 외교부가 중소기업 수출,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손을 잡은 것에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부처간 철옹성 같은 '칸막이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 관련 해외 수출·진출만 놓고 보면 중기부, 외교부 뿐만 아니라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부 산하의 코트라(KOTRA),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간 해외에서의 추가 협력이 대표적이다. 중기부 출신 상무관 자리도 새로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에 배치해야한다.

일할 사람이 없어 중소기업 현장에선 외국인력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중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간 긴밀한 협력없인 해법이 요원하다.

중기부와 외교부간 이번 출발이 나비효과가 돼 다른 부처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모처럼 잡은 손이 어쩌다 등판한 외교부 출신 중기부 장관 한 명의 호기로만 끝나지 않기를 제발 바란다.

/bada@metroseoul.co.kr

심판의 시간

기자 수첩

이 승 용 〈금융부〉

파생결합펀드(DLF)·라임·디스커버리 등의 펀드사태가 잠잠해진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사태다.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기준안(분쟁조정안)이 발표됐고,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맞춰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쟁조정안에 투자자와 판매사들은 황당한 입장이지만, 이를 제시한 금융당국은 만족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제 다음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로 인한 은행권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진행한 현장 검사에서 일부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원금 보장 등 안전 지향성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고위험) 상품인 ELS 가입을 유도하거나, 직원이 강제적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개인성과지표(KPI)를 설계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규모가 18조 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최대 수조 원 단위로 추정되는 과징금 규모도 은행권이 긴장하는 이유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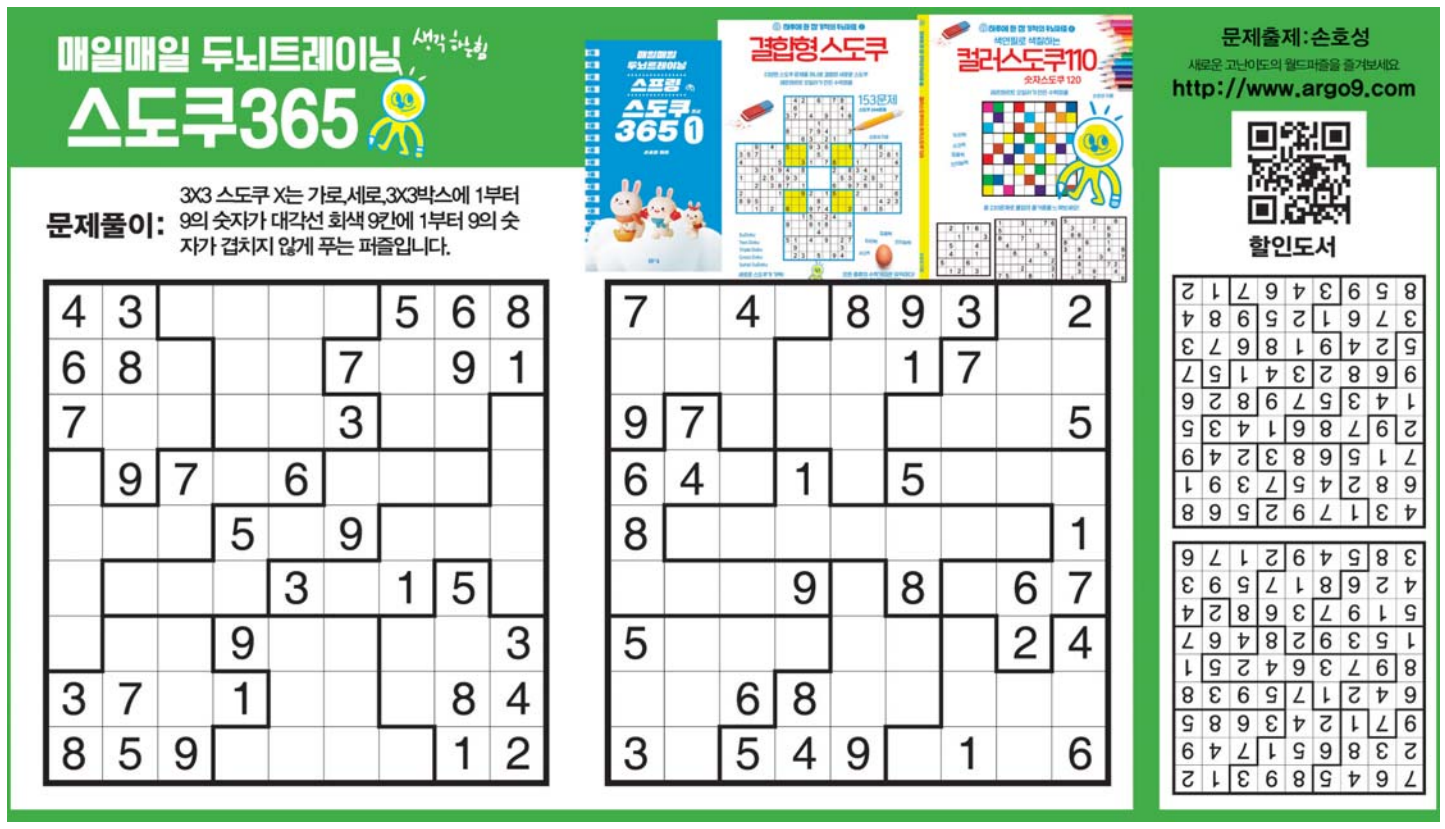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권 전체 홍콩 ELS 판매액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본격 전달하고 세부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판매사들은 소명의견서를 다시 금감원에 보내면 금감원은 적용 법규 등을 따져본 뒤 제재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 수위를 논하게 된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빠르게 마무리 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어설픈 배상과 제재로 피해자들은 기만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lsy2665@



오늘의 운세

4월 8일 (음 2월 3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을 만나니 비옷과 우산이 필수. **48년생** 자식이 제 배필을 데려오니 흡족하다. **60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갈 길이 보인다. **72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고 했다. **84년생** 기도 제목을 정해 시작해보자.

37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49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61년생** 마음먹은 대로 이사계획을. **73년생** 가정사에 매달려 회사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85년생** 가정에서 부화부순夫和婦順해야.

38년생 뒷마당에 꽃나무를 심는 날. **50년생** 병이 온 듯하나 약도 주어지니 소생한다. **62년생** 이기심을 접어보면 일도 풀리게 되니. **74년생** 부동산공부를 위해 지도를 사본다. **86년생** 능력 자랑보다는 상대가 배고플 때 밥을 사주도록.

39년생 심신이 고단하나 재물 운은 있다. **51년생** 상대방이 외화내빈이어도 세상일은 모르는 일 무시하지 마라. **63년생** 감기 기운이 있으니 외출 자제. **75년생** 꽃이 만발하니 마음도 싱숭생숭 갈피를 못 잡는다. **87년생** 미래를 계획해야.

40년생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52년생** 오후 좋은 기회가 오니 기다려 보라. **64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인색함을 버리고 사람을 만나라. **76년생** 사노라면 잘 풀리는 운 좋을 때가 있다. **88년생** 어릴 때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41년생 주변에서 투자요구는 피싱일수가. **53년생**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니 양보하는 것도 좋다. **65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언쟁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 **77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을 살펴라. **89년생** 조상님들에 대한 제를 모시는 날.

42년생 작은 이익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서두르기보다는. **54년생** 분노 조절을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 **66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78년생** 고집을 피우면 지겹다. **90년생** 영업에서 이익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

43년생 비 온 뒤에 다시 땅이 굳어진다 했으니. **55년생** 상대방을 칭찬하면 내게도 좋게 돌아온다. **67년생** 재개발사무실에서 소식이 감감하다. **79년생** 남서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있다. **91년생** 외국어가 탁월하여 직장에서 물고가 트인다.

44년생 사람이라면 안락과 기쁨을 원하게 된다. **56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68년생** 결과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다. **80년생** 분수를 알면 행운도 함께 찾아온다. **92년생** 배우자는 재테크의 귀재이지만 인색해서야.

45년생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떠나도 오늘은 거칠 것이 없다. **57년생**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으니 이익을 준다. **69년생** 오늘은 양보와 봉사가 미덕인 날. **81년생** 천우신조의 혜택이 함께 하는 날. **93년생** 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46년생 맨땅 위에 누워서도 편안하고 즐겁다. **58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이니 마음먹기 나름. **70년생** 오랜 지인이 형제보다 고맙다. **82년생** 부자가 되고 발전을 이루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인연. **94년생** 바다 멀리서 좋은 소식이 온다.

47년생 후회 없이 기분 좋은 하루. **59년생** 불조심하여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않도록. **71년생** 오기와 자존심을 구별 못 한다면. **83년생** 좀 더 긴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면 좋겠다. **95년생** 정치 얘기 나누다가 다투는 시간을 반복하지 않도록.

김상회의 四季

기도에도 방법이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월광사月光寺의 오랜 신도는 참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해오고 있다. 새벽이 좀 지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예불 겸 백팔 배를 해오기 시작한 것이 삼천몇백일을 넘어서고 있다. 처음에는 천일기도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막상 천일이 지나고 나니 그동안 해오던 습관이 몸에 배어 계속해온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상황이라 항상 가족의 안녕과 무탈함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기도 하지만 존재로 살아가면서 수행 삼아 할 수 있는 것 해나가야겠다고 한다.

더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 절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기도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심기일전도 되며 더 나아가 마음에 좋은 종자를 심는 행위가 된다. 맨 처음에는 어떤 바라는 것이 있어 작정 기도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뭐가 좋아져도 좋아짐을 느끼게 된다. 기도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21일 기도가 되었건 100일 기도가 되었건 어떤 기도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날에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뢰고 회향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하루의 기도도 말미에 회향해야 함은 물론 작정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회향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 내용은 내가 원하는 발원이 이뤄지기를 고함과 동시에 모든 유정과 무정들에게도 기도의 공덕이 함께 나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할 때 향을 꼭 피우거나 청정수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찰처럼 부처님이나 보살상을 모셔 놓은 것이 아니라면 꼭 그러지 않아도 가하다. 다만 경전이나 염주를 사용한다면 작은 탁자나 상에 올려놓아서 경전이나 염주를 타 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0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1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